

| 권두언 |



박명준

본지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회적 대화 담론의 새 장을 열며

지난 2018년 1월 31일 신년벽두 우리 사회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들 모두가 참석한 사회적 대화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민들은 이번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풀어 줄 사이다 같은 대안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노사정 대표 5자와 그들의 명을 받아 노사정위원회의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를 기대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도 한껏 부풀어 있다.

새로운 대화의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불가피성을 예감한 노사정위원회는 작년 말 일찌감치 작은 변화를 결행했다. 그간 위원회 활동의 홍보 역할을 맡아 온 기관지 월간 <노사정>을 폐간키로 하고, 대신 새롭게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창간을 결정한 것이다.

월간 <노사정>이 주로 위원회의 회의체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홍보지였다면,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그 목표와 위상이 사뭇 다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산시키고,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들을 담아내고 공유하는 ‘인식의 그릇’ 역을 해 보겠다는 기특한 포부가 그 안에 숨어 있다.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본인이 직접 편집위원장을 맡았고, 권혜원, 김미영, 김종진, 박종식, 손영우, 윤자영 등 외부에서 한창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 연구자들을 편집위원진으로 전격 초빙했다. 예산도 대폭

늘리고 발행부수도 증가시키기로 했다.

월간 <노사정>의 주어가 어디까지나 노사정위원회였다면, 격월간 <사회적 대화>의 주어는 바로 사회적 대화 일반이다. 여기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장소를 나타내는 여러 부사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대표자회의는 물론이고 향후 새롭게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그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무겁게 다루어질 부사어일 것이다.

현실이 그러할 지라도 우리 창간주체들은 노사정위원회든 그 후속 기구든 적어도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개최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간주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치사회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보다 쉽고 친숙하며 상식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간호는 특별히 문성현 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자 본지 발간인의 [창간사]를 담았다. 이어서 기존의 노사정은 물론이고 그들을 넘어 보다 분화된 사회경제적 이해실현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관장들로부터 짧고 굵은 [창간 격려사]를 받아 실었다.

[기획대담]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본지의 창간을 맞이하여 3인의 사회적 대화 전문가들(노중기, 이주희, 손영우)을 모셔 필자와 함께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주제로 수행한 긴 토론의 결과를 지상(紙上)에 옮겼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우리 사회에서 그간 그것이 잘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단, 앞으로 그것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에 대한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견해들이 돋보인다.

[사회적 대화 논단] 코너에는 두 사람의 사회학자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옥고를 받아 게재했다. 신광영은 향후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부상할 대주제(grand theme)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표방되고 있는 ‘노동존중사회의 의미’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통찰을 제시해 주었다. 박종식은 2018년이 조선업종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적기라고 하는 주장을 다양한 분석을 담아 역설하고 있다.

[현장에서 듣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코너도 야심차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월 31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조명하면서, 지난 과정마다 숨은 일꾼으로 역할을 한 우태현 노사정위 기획위원을 인터뷰해 그 소회를 들어 보았다. 지역수준의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로 ‘뜨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에 대해 그 주역인 광주시 박병규 경제부시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업종수준 사회적 대화의 대표적 시도로는 ‘공공부문 상생연대 기금’의 실천기획

및 전망을 놓고 이병훈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밖에도 지역, 업종, 기업, 외국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단신들을 소개해 독자들의 입맛을 돋우고자 했다.

경제사회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해를 자유롭게 추구할 것을 보장받으면서도 자신들과 다른 이해를 추구하는 주체들에 대해 상호인정과 역지사지의 정신을 갖고 소통해 가는 문화의 확산과 정착은 사회적 대화의 뿌리내림을 위한 비료와 같다. 격월간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목표와 지향을 품고 이렇게 태어나 점차 성장해 갈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창간호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모국으로 간주되는 네덜란드 못지않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논의경제(concertation economy)’이자 ‘노동존중사회’로 대한민국이 탈바꿈해 가는 날까지, 이 매체가 작은 역할을 해 가길 꿈꿔본다.

창간호에 직접 등장하며 다양하게 기여해 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연말 연초 바쁜 가운데에서도 두 차례의 편집회의를 통해 창간의 틀을 잡아 준 편집위원들, 여러 말들과 글들을 수집해 하나의 책으로 묶어 내는 ‘구체화’ 작업을 도맡아 준 <참여와혁신>의 임직원들, 그리고 전체적인 조율과 함께 세세하고 귀찮은 일들을 사명감을 갖고 챙겨 준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 홍보팀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애정과 격려, 나아가 비판과 참여를 기대한다.

2018년 2월 광화문에서